

### 범어사 칠성도 2점 국내 경매 통해 환수

#### 삼정기업 낙찰받아 기부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가 9월 15일 국내 경매시장 서울옥션에서 칠성도 2점을 낙찰 받았다. 이번에 낙찰 받은 칠성도 2점으로 범어사는 유실됐던 칠성도 총 11점 가운데 5점을 되찾는 성과를 이뤘다.

경쟁과열 방지를 위해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수불 스님의 칠성도 환수 의지를 확인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경매에 적극 참가했다. 4200만원에 2점을 낙찰 받은 박 회장은 낙찰 후 바로 범어사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 박정오 회장은 지난 스위스 경매에서도 범어사 칠성도 환수를 위해 낙찰가 9400만원을 전액 기부한 바 있다.

주지 수불 스님은 “지난 7월 스위스에서 귀환한 칠성도 3폭이 있어 이번에 귀환한 칠성도의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컸다”며 “당시 사찰에서 중요한 예배 대상이었던 칠성도를 더 많은 대중들이 와서 보고 그 가치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바람을 밝혔다.

범어사는 7월에 귀환한 칠성도 3폭에 이어 이번에 귀환한 2폭도 부산시 지정 문화재로 등록하고, 빠른 시일 내 독립 공간 칠성각을 건립하고 봉안할 계획이다. 또한 범어사는 개산대제 범요식을 개최하는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대웅전에서 칠성도 봉안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 남한산성 축조 주역 의승군을 추모한다

#### 장경사, 10월 11일 문화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내 불교문화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장경사가 4년째 남한산성을 축성·수리·방어한 의승군을 추모하는 수륙재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10월 11일 오전 9시 제4회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로 확대된다.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은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성 내 불교문화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경사는 남한산성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승군 추모 수륙재를 비롯해 산성내 불교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함으로써 남한산성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경사는 수륙제가 열리는 10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구절초와 산사, 산성이 어우러진 ‘구절초 음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흰개미 방제부터 세계유산 관리까지

# 문화재청 부실 행정 ‘도마 위’

#### 국회의원들, 17일 문화재청 국감서 질타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돌아왔다. 정부 부처 중 불교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문화재청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17일 문화재청과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불교 관련 문화재 행정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 흰개미 방제, 조사만 하고 ‘끝’

조성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시흥)은 흰개미 방제 대책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258건의 목조문화재 중 약 66%에 달하는 169개의 목조문화재가 이미 흰개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6월 28일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피해예방 대책

으로 △전수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발견 △적극적 방제 추진 △흰개미에 대한 예방교육 연 10회(전국순회) 실시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진단·조사 등 연구 인력을 보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 같은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모니터링의 경우 전수조사 이후 방제·방역을 하더라도 업체로부터 방제·방역 이후 준공보고만 받았고, 인력보강은 발표와 달리 조사인원만 1명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3명으로 전혀 늘지 않았고,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연구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흰개미 예방 교육을 10회 실시하겠다는 것도 허언에 그쳤다. 흰개미 피해예방 교육은 단 한차례, 지역별로 2차로 나눠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조 의원은 “발표만 해놓고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대책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석사 관음좌상, 정부 입장 내라

또한 조 의원은 2012년 한국의 문화재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훔쳐와 검찰에 압수된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에 대해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며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흰개미 피해 많아도 대책 ‘전무’

#### 부석사 관음상 정부 모르쇠 지적

#### 혈세 쏟은 세계유산, 관리 안돼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절도한 불상 2점의 반환 여부가 이슈화 되자 이듬해 외교부 주관으로 정부 입장과 대응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2차례 열렸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회의 결과

를 구두로 진행하고, 보고 내용에도 마련된 “정부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에 대처하는 문화재청의 방관적인 자세를 보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조속히 문화재청과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유산 지정에만 신경쓰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지정 이후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개 세계문화유산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2012년 180만명에서 2014년 110만명으로 38.6% 가량(제주도 제외) 줄었다.

개별 유산별로는 석굴암·불국사 39.9%, 종로 65.8%, 창덕궁 22.6%, 화성 53.6%, 하회마을 29.9%, 양동마을 77.2%, 조선왕릉 75.6%, 송산리 고분군

50.9% 관람객이 감소했으며, 늘어난 곳은 해인사 40.7%, 고인돌 유적 43.7%, 공산성 73.1% 등 3곳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국외 문화재, 美·日에 70% 집중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경남 마산회원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문화재 16만 342점 중 6만 7708점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외문화재 16여만 점 중 42.2%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국외문화재에 대한 반출경위나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전문가 양성과 치밀한 환수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지역·종교 초월한 힐링 도량으로 발돋움”

#### 천태종, 9월 12일

#### 구인사 국제선원 개원식

#### 대웅전·문화체험실 등 5개동

#### 총 100억원 투입된 대작불사

국내에는 물론 세계인을 누구나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1년 5개월간의 불사를 마친 천태종 단양 구인사 국제선원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9월 12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강변로 소재 구인사 국제선원(선원장 덕수)에서 국제선원 삼존불 봉안식 및 낙성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일심정성이 선(禪)이며 무심기도가 정(定)이라. 선정에서 지혜가 우러나오니 자비 방편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명산 승지에 수행 도량이 이룩되니 생사해탈의 길을 부지런히 닦아 나아가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맞아 국제선원이 낙성된 것은 천태종이 개인과 전체를 화합시키는 교두보를 열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많은 원력이 모아져 설립된 만큼 앞으



천태종은 9월 12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강변로 소재 구인사 국제선원에서 국제선원 삼존불 봉안식 및 낙성대법회를 봉행했다.

로 수행정진을 돌려하고 사회와 국가, 인류 평화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제선원장 덕수 스님도 개식사를 통해 “국제선원은 종교와 지역, 계층,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이들이 이곳에 와서 수행과 문화를 체험,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며 “정진하는 공덕을 꽃피우는 수승한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당부했다.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낙성대법회는 총무원장 월도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상월원각대조사 범어 봉독(종회의장

문덕 스님)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교무부장 경혜 스님) △개회사 △법어 △치사 △축사 △축가(삼대사·삼천사·광법사 연합합창단)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구인사 국제선원은 7800㎡(약 2360여평)에 국제선원(대웅보전) 1동, 문화체험실 2동(지관당, 법화당), 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총 5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구인사 국제선원 건립 불사에는 국고 50억 원과 기부금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됐다.

단양=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佛書통해 자비 넘치는 장교되길”

#### 조계종 포교원, 1회 사관생도 독후감 공모 시상식

#### 대상 김지혜 생도 등 16명 수상

#### “독서하며 불교 관심·신심 높여줘”

조계종 포교원은 9월 12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1회 사관생도 독후감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불서를 통해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미래 군 인재 포교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공전에서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3학년 김지혜 생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김태현(육군사관학교), 변성훈(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에 걸쳐 총 16명의 생도가 수상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공

모전은 육사, 해사, 공사, 3사관, 간호사관, 경찰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부처님의 생애> <자기를 바로 봅시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 대상도서로 지정됐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사관생도들은 장교로서 살아가게 된다. 소대장으로 임관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희생’이다. 지혜와 용맹도 좋지만 덕으로써 부대원들을 보살피어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지혜 생도는 “불서를 통해 불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하게 됐다. 앞으로는 법당에도 자주 들러서 신생활등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대상 독후감 전문 31면>



조계종 포교원은 9월 12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1회 사관생도 독후감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대신했다.

# 44 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운문 44차 총동문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봄 선후배 동문스님들의 협조와 결속으로 우리는 큰일을 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비단위에 꽃이 피듯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문들을 가을 향이 그윽한 운문사로 초대합니다. 운문 인연들이 함께 모여 토론과 화합으로 무한 향상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운문사는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일 시 : 불기 2559년 음력 8월 20일 오후 2시 (양력 10월 2일)

장 소 : 운문사 선영당

- 안 건 : ① 장학금 전달 (필히 본인 참석)
- ② 모교 발전과 여러 가지 안건
- ③ 기타 -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 설명회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중단 지원에 대해서)

전 화 : ☎ 054-370-7100 (운문사 종무소) 010-9776-9390 (동문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금 타 합장